

보험계리사 시험 -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쪽

1. 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 당일부터 보험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소급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길다.
- ④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특정시점을 책임기간의 시작 시기로 정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특정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 전부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나. 암보험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해불명 부위의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한 ‘원발 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 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손해 배상청구의 사실을 필수적으로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 마.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마              ④ 나, 라, 마

3. 보험계약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  
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 규정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지급기일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라.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다, 라                      ④ 나, 다, 라

4.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보험계약자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동산이 중고품임에도 신품이라고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설명받지 않은 특정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다.

- ① 나,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5.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저한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 ② 보험자의 대리인과 보험중개사는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③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해 부실고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④ 손해보험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촬영장비의 렌즈가 파손되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임대인)의 보험계약자(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는 효력이 없다.
- ③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자기의 소유로 기재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임차인은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 상법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 )월을 내리지 못한다.
- 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 )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 )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① 14      ② 15      ③ 16      ④ 17

8.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험자의 말만을 믿고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보험계약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에 부보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적하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된다.
- ④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고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면 체결순서와 관련 없이 보험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

10. A가 본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핸드폰 파손시 수리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핸드폰을 B에게 중고로 판매·양도하였다. 이때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 A가 매매계약에 따라 핸드폰을 B에게 양도한 때에는 B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A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A 또는 B는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핸드폰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A 또는 B가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으로 인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없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핸드폰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원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B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변경된다.

11.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각각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만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라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로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12. 상법상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위의 객체가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청구권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제3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 ④ 보험사고가 면책약관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면책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권대위를 할 수 없다.

13.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보험자는 가스의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피보험이익은 적법해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화재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그 가족에게 청구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상법상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에 관하여 보험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부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②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④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손으로 추정하므로 피보험자가 위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이 선박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15. 상법상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진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
- ② 대법원은 과거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근래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변형되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라 판시하고 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영국법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직접청구권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 상법이 아니라 영국법이다.

16.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 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 ②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17. 상해사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소로 한다.
- ②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여 사망한 경우 급격성이 충족된다.
- ③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연성이 충족된다.
- ④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외래성이 충족된다.

18. 상해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상해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중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면책된다.
- ③ 상해보험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④ 상해보험보통약관에서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19.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는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된 통보를 한 경우, 통보 시점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 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당초의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상법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 ③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2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겸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겸영이 허용된다.
- ③ 보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 ④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 제외)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을 겸영할 수 없다.

23.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 조직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서 이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4.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이 1의결권을 갖는다.
- ④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5.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한다.
- ③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일정 요건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한다.

26.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 라.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 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 마.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27.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3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을 할 수 없다.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8.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에 대하여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9.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해당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전송대행기관을 포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등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그 보험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손해사정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나. 가입자가 본인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 하는 경우
- 다.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① 3개                                      ② 4개
- ③ 5개                                      ④ 6개

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4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월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 ③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대법원은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③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행위
- ④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②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③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④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 하는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갑이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갑이 이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 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라
- ③ 나, 다                                      ④ 다, 라